

* 팀NO : 2018-06

2018 단기선교팀 신청서

선교위원회 확인

1. 국가팀명 : 미얀마 (4 팀) (1교구 1팀) *항공권구매: (자율 교회)

2. 사역지 : 이스트 다곤 공항 : 양곤

3. 사역기간 : 2018 년 5월 9 일(수) ~ 5월15일 (화) / (6)박(7)일

담당

분과장

위원장

이성돈
2/18

김영환

이영석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 소	E-Mail
1	팀장	권사	이율의	LEE YUL EUI	1		93-105				
2	총무	권사	강신순	KANG SIN SUN	1		86-12				
3	서기	권사	이명옥	LEE MYUNG OK	1		87-33				
4	회계	집사	김정현	KIM HYEON JEON	11		2003-02				
5	의료	권사	전순희	JEON SOON HEE	11		95-15				
6		집사	김명식	KIM HYUNG SIK	1		2000-05				
7		전도사	송복임	SONG BOK IM	1		2003-4				
8		권사	손선례	SOHN SUN RAE	14		94-71				
9		집사	지강미	JI KANG MI	1		PP-10				
10											
11											
12											
13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교구(부서)장

교구(교육)위원장

미얀마 4팀 단기 선교 소감문

(2018,5,9~5.15)

1교구 이율의 권사(93-1054)

1. 팀구성에서 훈련 완료까지

우리 팀은 미얀마 단기선교에 뜻이 있는 몇 명의 60대 권사들이 발의하여, 남성 한 명에 8명의 여성 팀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60대 이하의 팀원은 2명이었다. 두 명을 제외한 7명의 평균 나이는 69세에 가까웠다. 우리가 CMTC 훈련을 받을 때는 전에 하던 방식대로 노방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선교위원회에서 조증덕 협력선교사를 돕는 사역의 임무를 주셨고, 이어서 조증덕 선교사님은 우리들에게 어린이 사역을 포함한 자세한 사역 내용과 준비물 명세서도 보내주셨다. 우리 팀원들은 갑자기 팀자체 훈련 더하기 어린이 사역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해야 하게 되었다. 색종이와 풀을 사고, 풍선을 사서 1교구의 임은혜 권사님을 초청하여 색종이 디자인을 배우고, 박진수 집사님을 초청하여 풍선아트를 배웠다. 모두 우리에게겐 서툰 일이었으나 집에 가서도 열심히 연습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심의 기쁨과 어린 손길의 민첩함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어린이 찬양과 율동을 열심히 연습하였다. 마침내 소정의 과정을 다 끝내고 선교위원회 목사님과 송진경 전도사님의 기도를 받고, 여러 교우들의 전송을 받으며 전과는 다른 각오로 선교 길에 올랐다.

2. 선교지에서 어린이 사역

9일 밤 열시 넘어서 우리는 양곤 국제공항에서 마중나와주신 조증덕선교사님 내외분과 다른 동역 선교사님들의 마중을 받으며 안도와 사명의식을 동시에 느꼈다. 조증덕 선교사님은 오래 고심하고 찾으셔서 우리에게 깨끗하고 저렴한 숙소를 준비해주셨기 때문에 팀원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히 휴식하였다.

다음 날 9시 우리는 홀랑따야란 지역에 있는 충현 AFTERSCHOOL에 가서 어린이 사역을 하였다. 이 집은 빈민촌에 자리하고 있는 6~7평 정도의 방으로 책상도 의자도 없는 방이었다. 이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는데 첫날 60명 정도 왔었는데 다음날은 100명 넘는 어린이들이 왔다. 우리는 선교사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준비해간 자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과 율동을 하고, 색종이 접기, 풍선아트, 게임 등을 같이 하고 선물도 나누어주면서 어린이들과 사귀었다. 섭씨 39도에서 40도를 넘나드는 기후에 실내에는 천정에 달린 작은 선풍기만 있는데 전기가 자주 끊어지기 때문에 이마저 냉방의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우리는 잠시 땀을 흘리지만 선교사님들은 여기서 많이 고생스러우시겠구나 생각하였다. 어린이들은 우리들보다 민첩하게 모든 활동을 잘 따라 하였고, 우리에게 색종이 등을 만들어 선물하는 등 나름대로의 사랑을 베풀어주어 우리를 감동시켰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방학 중 성경학교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이들도 이런 활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하였다.

3. 대학생과 한국어 공부

GMS 선교단체에서 양곤에 로댐 교회를 세우고 이 건물에서 로댐 한국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넷째 날 사역은 이 학교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팀으로 나누어 한

국어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미얀마의 학생들은 학비를 내지 않고 대학에 다닐 수 있다 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만 대학생이 될 수 있다한다. 이 로뎀 한국어 학교는 대학생 이상의 젊은이들을 모아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 중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에도 나오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하고, 작지만 기숙사도 운영하는데 모두 무료라 한다. 교사들은 중장기 선교사로 오시는 분들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 똑똑한 젊은이들 2-3명씩을 배정받아 그들이 배우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같이 보며, 그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우리 팀원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동안에 복음의 말씀도 같이 전하였다. 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깊이 박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 후에 에디오피야 여와의 내시와 같이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배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4. 로뎀교회에서의 주일 예배

미얀마 수준으로는 어지간히 넓은 예배당을 가득 메운 미얀마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며 우리는 감동하였다. 주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 그들의 환영에 우리들도 미얀마 말과 우리말로 찬양을 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우리는 몇 명의 대학생들을 통역 도우미로 하여 양곤 공원 중의 하나로 가서 노방전도를 하였다. 우리가 외워간 전도 언어 외에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전도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 또한 기차를 타고 시장으로 복음전하러 가는 중에 기차 안에 탄 승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 전도지를 주고 읽어보라고 권하면 무료한 시간이므로 대부분 열심히 읽었다. 기차 정거장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나는 스님에게 가서 전도를 하였는데 영접기도까지 따라 하여서 신기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준 전도지로 그 스님이 예수믿게 되기를 기도한다.

5. 분명한 목적과 계획 있는 선교

이번 협력선교사를 돕는 선교는 우리에게서 처음 해보는 선교였다. 과거에 하던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동네마다 다니며 복음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결과를 거두게 될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선교였다. 따라서 약간의 염려와 스릴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교 사역은 처음부터 명백한 목적과 철저한 계획에 의하여 준비하고 시행된 전략적인 선교였다. 우리는 협력선교사님의 인도에 따라 안정감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였고, 우리의 능력이 충분히 큰 결실을 거둘 만 하지는 못할지라도 방침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였기 때문에 보람을 느낀 사역이었다. 도우러 왔으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서 반갑게 함께 사역했던, 충현교회에 계시던 조증덕 선교사님과 강영미 선교사님을 아쉬움 속에 작별하고 공항에 배웅나와주신 두 분의 배웅을 받으며 비행기에 올랐다. 젊은 팀원은 물론 씨니어 팀원들까지도 영육이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과 위해서 기도해주신 충현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

선교 소감문(선교국가: 미얀마)

(사역기간:2018 5 9 ~ 5 15)

팀번호 : 미얀마4 . 1교구 4팀 (팀장: 이율의) 성명 : 이 명 옥

미얀마 선교는 처음이라 설렘과 기대 미얀마나라 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다
불교국가인 여러종족의 나라 선교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 하는 생각 등
진실한 전도를 해야겠다는 각오로
도착한 양곤공항의 작은 모습과 더운 바람 이제 시작이구나 하며 기도했다
여기저기 보이는 불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말씀을 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중 한 조중덕선교사님을 만나 준비한 숙소에 들어가니 깔끔한 실내가 마음 에 들었다
아침 경건예배 을 드리고 어린이 초청잔치를 위해 홀링피아로 출발하여 가는동안 찬양드리며
하루일정을 정리하며 아이들이 궁금했다
홀링피아방과후 학교에 도착하니 학교교실과 주변 환경 이 너무 열악했다
5~6명 되어보이는 교실에 천장에 달린 작은선풍기 하나가 전부였고
고르지 않은 바닥은 비닐장판이
깔려있었다. 시간이 되어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한니 기대감이 솟는다
오십여명 모여 예배드리고 게임하며 선물도주고 예수 사랑을 전했다
오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 100여명이 되어 선교사님들이
더위와 땀범벅이되어 옷이 젖어도
모두 즐거운시간이었다 전기사정 이 좋지않아 중간에 정전되기도 여러번
색종이접기 오색복음팔찌만들기 풍선아트 편을짜서 볼링게임등
울동과 찬양 복음팔찌만들며 예수님오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설명하며
은혜로운사역을 하였다
집에돌아가는 아이들에게 예수사랑을 다시전하며 아쉬운 어린이 사역을 마쳤다
아이들이 예수님 사랑을 잊지않고 여기 학교에서 예배드리며
아이들가정 부모님까지 예수님 만나길 기도 한다 감사한마음으로 어린이들을 보냈다
예수님 사랑 승리하길.....

선교 소감문 (선교국가 : 미얀마)

(사역기간 : 2018. 1. 9 ~ 20 . . .)

팀 번호 : _____ 교구(부) _____ 팀 (팀장: 이윤) 성명 : 전 윤 리

이번선교는 할랑따야중편어린이 학습방 성경학교로 어린이들을 활동 지원하면서 같이 만났음과 놀아줄 하는 선교였다. 각오 많은 교실에 어린이들이 약 70명 정도 모였다. 더운날씨에도 어린이들은 그아름다운 눈을 감박이며 만났음과 놀아줄 하고 관양과 활동을 하고 종이접기를 하면서 우리선교사님들과 같이 하나되어 즐거운 바쁜 성경학교를 시작하였다. 다음날은 그더운날씨에도 어린이들이 120명 정도 모였다. 서로가 입으로 통하여 손에 손잡고 왔다. 어린이들과 선교사님들이 같이 만났음과 전라국 유희동과 관양을 하며 놀아줄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였다. 어린이들의 눈은 우리주님께서 기뻐하실 예쁜 어린아이들이였다. 이에쁜 어린아이들을 구원 하시기위해서 우리선교사님들을 보내심을 확신했다. 하나님께서도 주의일꾼으로 세워기위해서 아니. 미얀마 땅을 구원 하시기위해서? 그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주님의 나라가 되고 일꾼이 될것을. 로덤 변함 선교지에서 학생들과 청년들 만나 만났음과 전라국 노방전도를 했다. 하루하루가 은혜의 시간들이자 우리선교사님들 시간될 때마다 주님께 기도 했다. 미얀마의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길.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교회가 많이 세워질것을 믿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모든것을 주관 하심을 믿읍니다. 이번선교는 어린이들과 젊은 학생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했던 선교였다. 미얀마의 어린이와 젊은청년들과 학생들을 통하여 그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것을 믿는다. 이번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와 관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 소감문 (선교국가 : 미얀마)

(사업기간 : 2018. 5. 9. ~ 2018. 5. 15.)

팀 번호 : _____ / 교구(부) 4 팀 (팀장: 이윤희) 성명 : 송복임

출발선 예배에서. "주여 네 입술을 열어 주신대 네 입이 주를 찬송하며 원파하리이다"
(시 51:15) 몸과 마음의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성령을
소망하며 출발했다. 나는 미얀마 성도가 두 번째이다.

미안마의 그 열악한 환경과 위상승배에 사근잡혀 있는 그들의 삶이
모습에 가슴에 기록하여 올린다.

하나님은 미안과 백성을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소명을 주셨다.

이번 미얀마 선교는 군중독선교사의 사역을 경험하는 선교였다.
무덤바 홍강대학가동에 있는 흥한 어린이집에서 100여명의 아이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 ~~과~~ ^가 프로그램을 모두 ~~유니~~ ^{유니} 준비하여 진행하였다.

어둡고 캄캄한 환경. 심층난 대위. 무질서한 아이들. 그 가운데 성령님은
영사해 주셔서 한 마음 되게 하셨다.

생존이 정기다. 바이블 스토리에 그려진 그림 생각하기 복음 팔찌만들기
 풍선아트. 어린이 불링으로 게임하며. 선물 나누기. 찬양하며 찬양만들기
 생각한 그림으로 복음찬조 진행고 복음팔찌를 만들며. 하나님을 믿지
 않음은 "죄"인것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 받은 은혜를 선포했다.

로템 학당 학생들은 각 지역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200여명
수업을 하고 있었다. 한글을 배우는 청년들의 모습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말로 대화하며 복음을 전하며 큰 기쁨을
얻었다. 주말에는 로템 학당 청년들과 함께 경배의 찬양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며 영광을 돌렸다.
우상의 나라 이만아가 복음화되는 날을 간절히 소망한다.

선교 소감문 (선교국가 : 미얀마)

(사역기간 : 2018. 5. 9. ~ 2018. 5. 15)

팀 번호 : / 교구(부) : 팀 (팀장: 이윤의) 성명 : 손 선 레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미얀마 땅에 기독교가 들어간지 204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125개 언어가 있더라니

우리가 단순히 알기 쉬운 언어가 제대로 전해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양곤에서 가장 열악한 공장지역인 흘광라야 종편 학습방에

1 일재에 60명의 어린이들이 2 일재에 1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외침은 39°C 의 타워에도 우리는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환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뜨거운 양철지붕아래 선풍기조차 없는 그곳에 조용조용한 까만

노동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인물들의 색깔하기 복음팔찌 운동을 따라하며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함께 하는 그명훈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의 뜻 나는 주님 오실때까지 선교사임을 재 각점

하게 하셨습니다

양곤에 73개 교회가 있으나 미얀마의 모든 살세를 주관하는

버마족은 하나도 없다 합니다

미얀마 땅 버마족에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열정있는 증거자 타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소감문 (선교국가 : 미얀마)

(사역기간 : 2018. 5. 9. ~ 2018. 5. 15)

팀 번호 : 4 / 교구(부) / 팀 (팀장: 이윤의) 성명 : 김영식

미얀마 4팀 선교보고 드립니다. 저희는 조종석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양곤 흘랑파야 7중
중학 after school 어린이 사역과 로딩한국어학당(로딩연합 선교회) 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의 세심한 배려로 좋은 숙소에서 머물며 이틀간 중학 after school 어린이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120명의 어린이(대부분 부모가 공장에서 일하며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빈곤지역
어린이들)들에게 워터폴 스토리(구약&신약) 색연필 그리기, 색종이 접기, 간식제공, 풍선아트, 복음화물
만들기, 어린이 볼링을 하며 이틀간 함께 지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 이들이 성인이 되어있을때 꼭, 꼭 간절히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에 다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
삼일째 저희는 로딩한국어학당에서 미얀마 청년들(17살~30살)의 한국어교육에 함께하여
이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미얀마는 커피, 카커피, 카커피, 까야커피 - 한커피, 산커피,
라카커피의 92 음음커피를 버마커피 동화하는 구르라 배웠습니다. 그러나 귀비족인 버마커피

0.2%의 소수종교자의 기록으로 극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전도종족입니다. 의외로 커피 99%
의 기록으로 되어 있으나 서로가 미워하여 커피를 서로 교회에 버마커피 오는 일은 없다합니다.

로딩 한국어학당은 여기서 한국어를 배워 한국어 와서 믿는 하고파하는 청년들이 많으니 이중
75%가 버마족 청년들입니다. 이 버마족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버마족은 이전도종족이니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미얀마의 내일이 밝을것이라
여겨됩니다. 다음날은 무덤과 땃땃땃에서 기차를 타고(40분) 양곤보크시강(우리나라의 남대문시장)

으로 향하면서 기차에서 전도하였습니다. 한화랑, 한화랑을 각개전투하듯 예수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딱히 이동할수 없는 아들이고 무로한 상황이 아들에게 저 개인적으로 아주 기쁜

전도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비둘기로). 커피성 한복에서 여기 미얀마는 가두리양식장처럼
우리가 생명보만 지속적으로 공화하면 속속키가는 카사님이 정말 풍요로운 나라라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칸조리호수에서 피크닉하는 남녀와 가족들이기 복음의 말씀을 전할때,
그들은 복음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의외로 예수님을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는데 놀랐습니다.

양곤에서 이러니 귀방은 어떠할까요? 본인이 아들이며 태어나 아들로 가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책상에서 과속롭다 예수성에게 말할수 있는가?

미얀마는 복음화가 4% 미만입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선교사가 되보여야 합니다.

(미얀마 선교사 200명 성직, 왕으로 캄보디아 선교사는 10,000명)

저희는 지속적인 선교사 자용과 이웃 헌기인의 예수성 영접 그리고 그 점의 가정교회 그다음
그 가정의 궁터에 몸과 함께하여 교회로(아니 이미 그가정인 교회입니다)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바아족이 초점을 두고 바아족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생각했습니다.

이성 선교보고를 마키며 예수성이 특별히 저희를 되하시어 미얀마 선교에 세워놓는데,
저희가 할일은 다 못한 북북 예수성이름으로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정말 더욱 열심을 내어,
저희 두를은 처 깨워 일어나 삼은 나그네길은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죽기까지
예수성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번 미얀마 선교에 힘을 함께해주신 조종덕 목사님과 그의아제 강영이 선교사님. 협력신도해주신
김배중 강이영 선교사님께 주님의 은혜가 풍만하길 기도드리며 종현 after school의 지투스 선교사님
께 주님의 입맞춤으로 인사드리며 코딩한국어학당 학생들인 엘리익, 이이, 칸따다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저희 이번 미얀마 첫 단기 선교팀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동라성이 천국까지 이어짐을 믿으며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미얀마 4팀 단기 선교사 김영석 올림